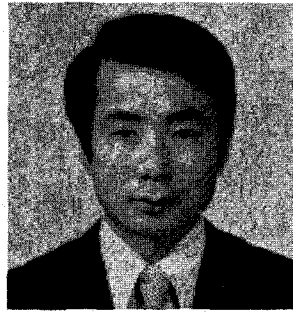


축협조직과 양계산업의 계열화

양계산업이 폭리를 노리는 투기
업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부화장,
사료업자, 생산자, 유통담당자, 소
비자가 모두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갖을때 양계산업은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다. 모든 관련자들에게 자기
배분이익을 안정되게 보장해 종계
생산부터 양계산업의 계열화는 깊
히 연구·검토되어 조속히 실현되
어야 한다.



문 기 한
(축협중앙회 조사부)

I. 머릿말

T.V 드라마에서 똑순이 엄마가 똑순이 아
빠에게 참기름위에 동동 띄워주는 계란하나,
또는 소화제를 선전하는 광고모델이 물어뜯
는 닭다리 하나를 위하여 사육농가가 쏟아넣
은 절대적 값어치(생산비 보장수준 가격)는
일방적으로 무시당한채 유통과정에서 결정된
객관적 가치(時價)만이 최종의 지배자가 되는
것이 양계산물 유통상의 일반적 현실이다. 경
우에 따라서 그 객관적가치가 절대적 가치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생산자편에서
는 더없는 다행이겠으나 대부분 그 수준을 훨
씬 못비치는데다 그 기복이 단기적으로 극심
하다는데서 양계산업의 문제의 심각성을 찾
고자 한다.

여기에서 빚어지는 피해는 양계산업이 항
상 불안한 산업의 대표로 인정되고 따라서 현
재 양계를 하고있는 농가조차도 장기적 투자
를 꺼리는가하면 심지어는 “비닐하우스 양
계”라는 기회주의자들의 투기대상이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양계산물이 우리들 식단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결코 가볍지않다면 생산자는 생산자대
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자라는 사명의식
아래 산물의 고가판매만을 고집하기 이전에
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비절감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유통관계자는 자기이익에만 집착한나
머지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작은 이
윤이라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얻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는 생산없이는 결코소
비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때 우리나

〈표 1〉

지역별 규모별 닭사육수수 분포

(81. 12현재)

구 분		계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충 남	전 남	강 원	기 타
지역별	수수(천수)	42,999	18,951	7,347	5,171	3,726	2,933	1,922	2,949
수수분포	비중(%)	100.0	44.1	17.1	12.0	8.7	6.8	4.5	6.8
규모별	100만수이상	대구, 인천, 양주, 남양주, 광주군, 포천, 안성, 김포							
대사육	70~100	부산, 화성, 파주, 고양, 이천, 용인, 원성, 월성, 경산, 칠곡, 양산							
시 군	40~70만수	동두천, 평택, 홍성, 천원, 익산, 김천, 울주, 김해							

라의 양계산업은 비약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런점에서 볼때 양계산업의 계열화는 또다른 차원의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사려되어 먼저 양계산업의 현황을 파악한 후 당면문제점을 찾아서 이의 대책의 일환으로 계열화틀소개하는 순으로 필자의 소견을 엮어 보고자 한다.

II. 양계산업의 현황

1. 사육동향

원래 채란양계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이제 채란계, 육계, 종계등으로 전문화되어가고 있다. 닭은 다른 축종에 비하여 증식력이 강하여 단기간에도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특성때문에 주 소비지인 대도시 주변을 중심으로 사육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한 경기지역에 전체수수의 44.1%가 집중되어 있고 그나머지도 지방대도시 주변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닭은 〈표-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도시 주변에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축종에 비하여 대규모 사육농가가 지배적인 축종이기도하다. 즉 한우는 전업이상의 농가사육두수비중이 12.8%이고 돼지가 51.8%인데 비하여 닭은 전업이상 사육 수수비중이 84.6%나 되고 있다.

2. 유통및 가격동향

우리나라에서 생산소비되는 5대 축산물중 소, 돼지는 가축시장이나 도축장, 도매시장 그리고 소비단체를 거치는동안 지배적이지는 못하지만 공조직의 유통기능이 어느정도 참여되고있어 견제기능을 하고있고, 우유또한 유통이 단순한대로 상당부분 공조직에 의존하지만 유득이 양계산물만은 거의 전량 사조직의 유통기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도매시장이없이 서울을 중심으로한 대도시에 산재해있는 수개의 도매상에 도매가격형성기능이 맡겨짐으로써 수요와 공급량이 적정하게 즉시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여 공정

〈표 2〉

호당 닭사육 규모별 호수및 수수분포

(81. 21현재)

구 분		계	50수미만	50 ~500	500 ~2,000	2,000 ~5,000	5,000 ~10,000	10,000 ~30,000	30,000수 이상
호수	호수(호)	628,380	617,860	912	3,345	4,018	1,587	576	82
	비중(%)	100.0	98.3	0.2	0.5	0.6	0.3	0.1	0.01
수수	수수(천수)	42,999	2,609	201	3,794	11,968	10,369	8,369	5,689
	비중(%)	100.0	6.1	0.5	8.8	27.8	24.1	19.5	13.2

〈표 3〉

양계산물의 연도별 실질가격지수 비교

(단위 : %)

구분	'71(기준)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닭고기	100.0	90.3	108.6	113.8	107.6	109.3	124.2	104.3	68.6	79.8	79.1
계란	100.0	88.1	93.6	90.6	92.8	79.6	83.4	75.7	57.9	57.4	57.0

한 중심거래가격이 형성되지 못하므로써 사육자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피해는 막대 할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때문에 도 다른 축산물에 비하여 다소 유통경로가 복잡하고 바람직하지않은 유통단계가 있어 유통마진이 비교적 높을 뿐더러 강한 증식력때문에 단기적으로 생산기복이 심하여 적정한 수급의 반영이 어렵다는것은 곧 양계산업의 안정화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더불어 닭고기의 경우 도계육보다는 생체유통이 한사코 지배적이므로써 유통시책수립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닭고기의 경우는 '78년까지는 실질가격수준을 유지해온 편이지만 계란은 '71년이후 계속해서 기준가격을 하회하여 최근에는 절반수준에까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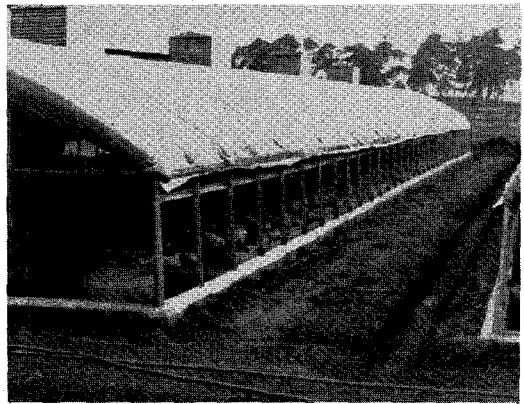
〈표 4〉 양계산물의 연도별 가격진폭율 비교 (단위 : %)

구분	'77	'78	'79	'80	'81	평균
닭고기	33.5	37.3	59.5	53.1	47.8	46.2
계란	31.2	41.2	51.3	32.6	32.7	37.8

〈표 5〉

양계산물의 연도별 소비동향

구분		'60	'65	'70	'75	'80	'81
총량	닭고기 (M/T)	18,068	14,458	45,177	55,594	90,866	90,647
	계란(백만개)	819	856	2,456	2,896	4,543	4,431
인당	닭고기 (g)	724	504	1,437	1,576	2,383	2,341
	계란(개)	33	30	78	82	119	114



△ 양계산업은 계절별로 가격 변동이 심해 수급의 심한 불균형으로 생산자의 노력이 아쉽다.

또한 계절별로도 가격의 변동율이 심하여 〈표-4〉에서와 같이 최근 5개년간 가격진폭율을 비교해보면 닭고기는 최저 33.5%로부터 최고 59.5%까지 심하여 평균 진폭율이 46.2%나되며 계란은 최저 31.2%로부터 최고 51.3%에 달하여 평균 37.8%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계절적으로 가격의 기복이 심하다는것은 그만큼 수급이 불평균하다는 뜻이며 수급불균형은 소비자보다 생산자들의 적정수준의 생산을 위한 노력이 결핍되어 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3. 소비동향

〈표-5〉에서 보면 과거 20여년동안 물량면에서 소비량이 많이 증가된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6〉에서와 같이 연평균 소비증가율을 기반별로 구분비교해 보면 60년대 후반기에 비하여 70년대에 들어서는 닭고기나 계란이 다같이 소비가 크게 둔화되어 오다가 최근에야 약간 회복되는 편이다.

〈표 6〉 양계산물의 기간별 연평균 소비증가율비교

(단위 : %)

구 분	'65-'69	'70-'74	'75-'80
닭 고 기	27.3	2.9	7.8
계 란	20.8	0.8	7.2

또한 육류중 닭고기의 소비구성비가 여전히 20%수준을 겨우 상회하는 수준인데 비하여 우리와 식단이 비슷한 이웃나라 일본은 30%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당면 문제점

이상 파악한 양계산업의 현황에서 당면한 문제점으로 다음 4가지를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생산자단체의 기능이 미약한데다 그나마 다원화되어 있어 다수 생산자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 대규모 사육농가가 절대적인 나라에서는 생산자 각자에게 생산과 유통활동을 맡기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으나 다수의 소규모 사육농가가 지배적인 우리나라같은 곳에서는 다수사육농가의 의사와 활동을 응집시킬수 있는 강력한 생산자단체가 있어야 생산과 유통면에서 효율을 높일수가 있다.

둘째는 공적 생산조절기능이 결핍된데다 생산량을 수요에 적합시키려는 생산자의 자발적 노력조차도 찾아보기 어렵다. 생산자단체의 기능미약으로 토의적인 생산조절기능이 거

의 없는데다가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생산만 해 놓으면 정부에서 수매라도 해주겠지...”하는 막연한 기대속에 무계획적 생산을 반복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지적하고 싶다.

셋째는 양계산물의 수급사정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중심거래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중심시장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모름지기 모든상품은 어떤 방법으로든 전체 수급사정이 적정하에 반영되어 형성되는 가격이 모든 거래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만 생산자나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고 역으로 가격이 수급조정을 유도해 갈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비번째는 양계산물의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차원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체식품간의 적정한 소비유도는 무엇보다 정책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즉 가격정책면에서나 조리법의 개발보급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Ⅳ. 양계산업의 계열화방향

1. 계열화의 기본적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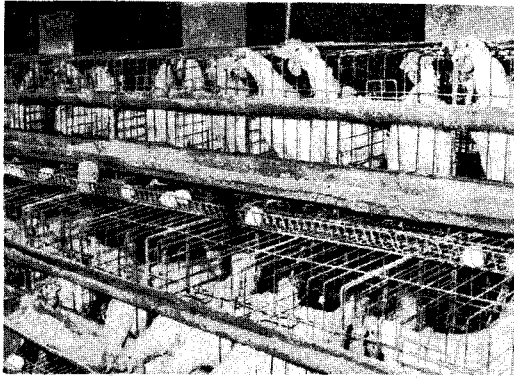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계열기업군”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즉 하나의 모체기업이 특정제품을 생산할 때 부품생산 기업체와 제품판매회사를 한기업군으로 하는데서 나온 말이라. 이러한 계열화가 농업분야에 도입된 것은 서구선진제국에서 특정품목의 생산기술이 고도화되어 생산능률이 극대화됨에 따라 공급과잉에서 오는 손실을 분산시키던가 특정품목의 생산이 지역적으로 극히 집중되었을 경우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윤을 취득할 목적으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품목이 생산되어 최종소비에 이르기까지를 구분해 보면

첫째, 생산을 위한 자재공급단계,

둘째, 생산단계,

셋째, 유통배분단계,

넷째, 판매의 4 단계로 구분할 때 각부분이



기능별로 독립경영된다면 각부문간에 상호 독자적 이윤추구가 격심해져 산업전체의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되고 만다. 따라서 이상의 4단계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1~2 단계를 중심으로 나머지 단계를 경영면에서 중속시킴으로써 마침내 각 단계별 독자적인 이윤추구에 앞서 산업전체의 안정을 얻게 되어 각부문의 능률증진은 물론 이윤도 균형적,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양계산물 중 브로일러의 예를들면 부화업자, 사료업자, 생산자, 도계업자, 그리고 유통업자중 어느 하나가 주체가 되어 계열화를 형성하는 종적 결합형태와 각부문 상호간(부화와 부화, 도계와 도계등)에 횡적으로 통합하는 형태가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통합형태가 너무 강력하게 되면 일종의 독점을 이루게되어 또한 사회적 폐단으로 지적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계열화를 형성하게 되면 계열화 주체는 단기적으로는 생산자 가격보장을 위하여 가격위험을 부담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병아리나 사료를 계속해서 팔수있고 도계용 생계를 정기적,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결국 더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2. 계열화의 유형

이상 소개한 바와같이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현실에 비추어 유리성이 기대되는 계열화의 유형을 들면 우선 외형적 형태에 따라서

생산을 중심으로 판매까지 각단계를 통합하여 형성하는 종적계열화와 각단계 상호간에 형성하는 횡적계열화를 들수 있으며 계열화의 실질적내용에 따라서는 그 주체가 통상 종속관계인 사육농가에게 단순한 자금지원이거나 기술지도정도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기초단계의 형태로 부터 아예 완전한 통합을 이루고 사육농가에게는 일정한 몫만을 지불하는 형태까지 다양하다. 또한 완전한 통합의 경우에도 참여부문에 대한 몫을 지불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다음과 같은 종류를 들수 있다.

① 이윤배분형 : 계열화 주체가 사육농가에게 제공하는 자재는 시가로 계산하고 경영과 판매는 상호협의를 의하며 이익과 손실을 공동배분하는 형태이다.

② 정액보장형 : 사육농가는 오직 생산시설과 노동력만을 제공하고 여타 부분은 계열화 주체가 완전책임지어 경영결과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형태이다.

③ 능률급형 : 정액보장형과 같으나 다만 이윤배분방식에서 생산능률에 따라 일정율의 이익배분도 보장하는 형태로서 가장 일반적인 계열화방식이라 할 수 있다.

④ 고정급형 : 사육농가에게 일종의 월급형태로 지불해주는 방식이다. 이상의 유형외에도 여러가지로 변형적인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형태든 생산단계는 다른 여타단계에 종속되어 계열화를 형성하는 것이 통례라고 들고 싶다.

3.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계열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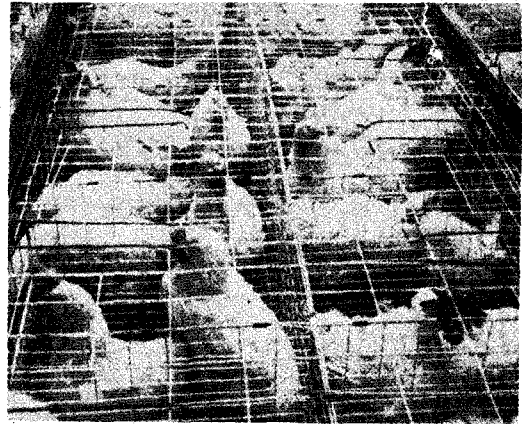
이상 계열화의 기본적개념과 유형에서 살펴본대로 계열화의 본원지와는 생산이나 유통등 산업적여건은 다르지만 현재 우리나라 양계산업에서 가장 큰 과제가 되고있는 안정생산을 위한 경영시스템의 일환으로 양계산업의 계열화를 다음과 같이 구상해 보고자 한다.

현황에서 파악한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양

제농가 중에서 영세 소규모사육농가는 전체 양계농가의 95%내외이지만 사육수수 비중은 5%내외이기 때문에 이들은 직접적인 계열화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나머지 5% 농가의 95% 사육수수가 문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5%의 사육농가도 다시 구분해보면 법인체로서 협동조합의 조합원대상이 될 수 없는 기업양계농과 그외의 축협조합원을 중심으로한 전업 내지는 부업규모의 양계농으로 나뉘어진다. 따라서 우리가 구상할 계열화 형태도 이상의 사육농가 여건에 비추어 두가지 형태로 구분검토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먼저 기업양계농을 중심으로한 계열화는 생산 및 유통의 각단계별로 관련기업들이 스스로의 필요성에 따라 자발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할뿐 정부는 기업양계수수 비중이 양계산물의 유통 및 가격형성 면에서 전부업양계농을 희생시키지 않는 적정 범위에 유지되도록만 하면 될 것이다.

다음 협동조합을 중심으로한 계열화는 형적으로는 수많은 사육농가를 생산자 단체인 축협의 조직으로 규합하여 자자각각의 경영의사를 축협의 시책에 종속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생산조절을 기하고 종적으로는 축협사료를 공급하여 조합원의 산물은 전량을 축협이 운영하는 도계장이나 계란공판장으로 집중시켜 판매유통하는 방향으로 계열화조직을 서두르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기본형태라 생각된다. 따라서 축협은 부화장, 도계장, 가공공장, 저장시설같은 기본시설투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소매기주와도 계열적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은 물론 기업양계와 경영능률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사업수행 체계나 인력, 제도적 기반까지도 수반되어야 성공적 계열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협동조합중심의 계열화조직이 단시일에 형성되고 활성화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정도만 갖추어 진다해도 수급이 상당부분 주도적으



로 반영되기 때문에 능률적 계열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맺는 말

양계산업이 폭리를 노리는 투기업의 대상이 될수는 결코 없다. 비닐하우스양계가 성행하다니 그렇게 하도록 아니 그런 생각만이라도 갖도록하는게 누구의 탓일까? 결국 우리 양계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 부화업자는 폭리를 보는데 사육농가는 사육비마저 건지지 못하는 수도 허다하게 겪어온 바다. 병아리와 사료가 잘 팔리려면 사육농가가 잘 사육야 하고 사육농가가 잘 사주려면 생산물이 적정가격에 잘 팔려야하고 유통업자가 잘 사주려면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많이 소비해줘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밀접한 상호관련성에 비추어 볼때 전체 양계산업이 안정화되려면 모든 관련자들에게 자기배분이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만 할 것이다. 모름지기 중계생산단체에서부터 양계산업의 계열화가 더욱 더 깊이 연구검토되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면에서 볼때도 전환기를 맞은 한국축산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생산자단체인 축협의 기능강화가 더욱 더 절실하게 요망되는 바이다.